

에릭 윌리엄스의 『자본주의와 노예제도』

박병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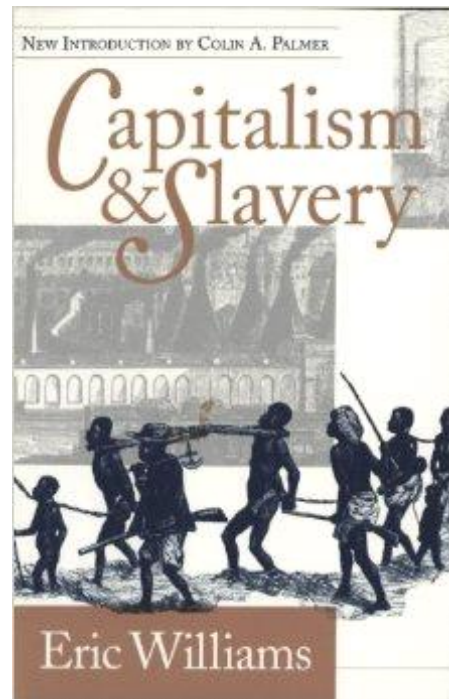
1. 사탕수수 플랜테이션과 아프리카 흑인노예

인류역사상 서구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 가운데 하나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 수입과 매매였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려 4세기에 걸쳐, 포르투갈, 에스파냐,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서구의 모든 국가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무역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인 1천2백만 명이 강제로 노예무역선에 올랐고, 이 가운데 1백50만 명은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오는 이른바 중간항로(Middle Passage)에서 질병, 반란, 학대 등으로 사망했다.

흑인노예라고 하면 우리는 링컨, 남북전쟁, 『톰 아저씨의 오두막』 등 미국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흑인노예가 유입된 곳은 브라질로 4백만 명이었으며, 그 다음이 아메리카 대륙의 에스파냐 식민지로 2백50만 명이었고, 미국은 50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3백만 명은 흔히 서인도제도(West Indies)라고 부르는 카리브 해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식민지로 들어갔다. 그런데 대앤티리스의 쿠바 섬에서 시작하여 카리브 해에 점점이 늘어서 있는 소앤티리스를 지나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이르기까지 서인도제도의 총 육지 면적은 남한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70km²이므로, 인구밀도로 따지면 이곳만큼 흑인노예가 많은 들어간 곳도 없다.

이렇게 서인도제도에 아프리카 흑인노예가 집중된 근원에는 사탕수수가 있었다. 사탕수수의 원산지는 남아시아인데, 15세기에는 대서양의 카나

리아 제도에서도 재배하고 있었다. 이 사탕수수를 콜럼버스가 1493년 2차 항해에서 이스파놀라 섬으로 가져간 것이 서인도제도 사탕수수 재배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신대륙에서 본격적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한 사람은 네덜란드인으로, 1550년에는 브라질 북동부의 페르낭부쿠에 제당공장을 설립했다. 1654년 브라질에서 쫓겨난 네덜란드인은 서인도제도의 바베이도스로 옮겨갔고, 이어 프랑스 식민지인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섬에도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들어섰다. 18세기에 이르



면, 영국 식민지 자메이카와 프랑스 식민지 생도맹그(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가 사탕수수 최대 재배지가 되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에스파냐 식민지이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도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들어섰다. 간단히 말해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은 브라질 북동부에서 시작하여 서인도제도의 섬을 타고 점점 북상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자메이카, 생도맹그, 푸에르토리코, 쿠바로 확산된 것이다.

사탕수수는 재배, 수확, 압착, 제당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서인도제도에는 원주민 인구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주민도 정복 이후 과도한 노동력 착취와 질병으로 급감하였다. 따라서 사탕수수를 비롯하여 카카오, 면화 등 단일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에서는 외부에서 노동력을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노동력이 바로 아프리카 흑인노예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서인도제도의 섬에서 섬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아프리카 흑인노예도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곳으로 대량 수입되어 인구 구성비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이를테면, 생도맹그 섬의 1681년 인구는 백인 4,336명, 흑인노예 2,102명이었으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1789년에 이르면 백인 30,826명

에 흑인노예 465,429명이었다. 흑인노예가 백인보다 무려 15배나 많았다. 이런 의미에서, 서인도제도에 “설탕이 없었더라면 흑인노예도 없었다.”¹⁾

그러면 서인도제도에서 흑인 노예제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흑인 노예는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그리고 흑인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는 어떻게 폐지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서구의 관점이 아니라 서인도제도의 관점으로 대답하고 있는 책이 바로 1944년에 출판된 에릭 윌리엄스의 『자본주의와 노예제도』이다.

2. 에릭 윌리엄스의 『자본주의와 노예제도』

1) 서인도제도의 흑인 노예제도 기원과 인종차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정복자들은 황금 찾기에 혈안이 되었으나, 정복이 끝나고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구대륙에서 건너온 에스파냐인은 농장에서 각종 작물을 재배하여 이윤을 획득하였다. 에스파냐인은 문화적으로 손수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장의 면적 또한 광대하여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그러나 16세기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은 대부분 멕시코와 페루의 고원지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서인도제도를 포함하여 나머지 신대륙에는 원주민 인구가 많지 않았다. 게다가 정복전쟁, 전염병, 흑사 등으로 원주민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므로 새로운 노동력 공급원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대안은 백인 노예였다. 유럽에서 계약제로 모집한 백인, 신대륙으로 건너오고 싶으나 뱃삿조차 없는 백인 등 하층민은 자발적으로 노예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노예노동에 종사했다. 백인 노예는 에스파냐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에릭 윌리엄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대다수 계약노예는 봉건적이고 가혹한 수탈을 피해 이주한 소작농, 지주

1) Eric Williams, *Capitalism & Slavery*,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44, p. 27. 이하 이 책을 인용할 때는 본문 괄호 안에 페이지만 표시한다.

와 성직자의 폭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아일랜드인, 3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이주한 독일인이었다.”(10) 서인도제도의 노예하면 일반적으로 흑인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백인 노예가 최초의 노예였던 것이다.

그러나 백인 노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흑인 노예로 대체되었다. 우선 백인 노예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를 되찾았고, 소작농이나 자영농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식민지의 경작지 확대에 따라서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는데, 유럽에서 데려오는 계약 노예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요소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비용이 훨씬 저렴했다.”(19) 아프리카 흑인 노예는 백인 노예보다 훨씬 우수한 노동자였고, 또 계약 노예가 아니라 평생 노예였으며, 자손 또한 노예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에릭 윌리엄스는 백인 노예가 흑인 노예로 대체된 요인 가운데 경제적 측면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흑인 노예의 기원은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이지 인종 논리가 아니었으며, “흑인 노예는 노동자의 피부색이 아니라 저렴한 노동력과 관련이 있었다.”(19) 우리는 인종간의 우열이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구임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에릭 윌리엄스가 이 책을 출간한 20세기 전반에는 19세기에 기승을 부리던 인종차별적인 관념, 다시 말해서 백인은 우등하고, 흑인은 열등하다는 관념이 아직도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관념에 맞서 윌리엄스는 흑인이 열등하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관념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인종차별 논리를 성공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2) 흑인 노예와 산업혁명

에릭 윌리엄스는 『자본주의와 노예제도』의 제3장부터 제10장까지 아프리카 흑인 노예와 영국 산업혁명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책의 핵심 명제 가운데 하나이자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주지하듯이, 대서양 삼각무역은 영국과 같은 유럽에서 유리구슬 등과

같은 싸구려상품(pacotilla)을 아프리카인에게 팔고, 그 돈으로 구입한 흑인 노예를 신대륙, 즉 카리브 해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싣고 와서 플랜테이션 농장주 등에게 팔았다. 이러한 흑인 노예가 신대륙에서 생산한 설탕, 면화, 카카오 등을 싣고 유럽으로 돌아오면 삼각무역은 완결된다.

아무튼 에릭 윌리엄스에 따르면, 삼각무역이나 식민지와 직접 무역으로 얻은 “이윤이 영국 자본축적의 주요 자금원이었고, 이러한 자금원으로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52) 구체적으로 1714년에서 1773년 사이의 영국 무역 총액 가운데 삼각무역과 서인도제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이었다.(54) 이러한 무역액은 당시 식민지이던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이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수입하여 사탕수수를 재배하던 서인도제도의 영국 식민지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이상적인 식민지였다.

이러한 삼각무역의 이익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조건은 독점무역이었다. 당시는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의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식민지 무역을 독점하였다. 영국의 항해법에 따르면, 영국산 목재로 만들고, 영국(브리튼)산 돛을 사용하여 건조한 배만을 영국 선박으로 인정하였고, 플랜테이션의 모든 하인과 노예는 영국산 모직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했다. 이로써 영국의 해운업과 조선업이 발달하고, 브리스톨이나 리버풀과 같은 항구도시가 발달했으며, 삼각무역의 상품(모직물, 면직물, 설탕, 럼주, 싸구려상품, 총기류와 농기구 등의 금속제품)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65~84). 삼각무역으로 창출된 이익금은 다시 영국의 금융업, 중공업, 보험업에 투자되어, 산업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이 에릭 윌리엄스의 논지이다(98~105).

그러나 에릭 윌리엄스는 “전적으로 삼각무역만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계를 긋는다(105-6). 영국의 내수시장 성장, 산업이익금의 투자 또한 큰 몫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3) 식민지 수익률 감소와 흑인 노예무역 금지 및 노예제도 폐지

영국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흑인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의 폐지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과 흑인 노예

인도주의에 기초한 영국 노예제도 철폐운동의 승리이다. 노예무역의 참상을 인식한 영국의 기독교도가 1780년대 노예무역폐지협회를 창설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투쟁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는 토마스 클라크슨(Thomas Clarkson), 올라우다 에퀴아노(Olaudah Equiano) 그리고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영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를 들 수 있다.

코플랜드 교수는 윌버포스와 가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한다. “귀하 업적의 제일가는 의미, 즉 노예제도 폐지가 남긴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윌버포스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 일은 하느님의 업적입니다. 하느님의 의지가 인간의 이기심을 누르고 승리한 것입니다. 어떤 이권이나 편견도 신앙과 기도로 물리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178)

한마디로, 노예무역 폐지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Amazing Grace)의

결과라는 것이다.²⁾ 이러한 그림은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들은 국교도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인 비국교도, 특히 퀘이커교도였으며, 대다수는 무신론자였다. 게다가 노예무역과 노예제도 폐지처럼 서인도제도의 플랜테이션 농장주, 노예선 선주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단순히 인도주의, 도덕관, 신앙심만으로 설명한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서 에릭 윌리엄스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노예무역 폐지와 노예제도 폐지는 식민지 수익률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판단이고,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영국의 카리브 해 식민지 수익률이 감소한 데는 무엇보다도 1776년 미국 독립이 결정타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무역관계를 보면,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이 식료품을 생산하여 서인도제도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 공급했고, 이 덕분에 서인도제도는 식료품을 경작할 땅까지도 환금작물인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영국의 경제에 이바지했다. 그런데 미국이 독립하자 서인도제도의 영국 식민지는 이전처럼 미국과 직접 교역이 불가능했다. 우회로를 통해서 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들여왔고, 따라서 서인도제도의 영국 식민지는 갈수록 수익률이 감소했다.(120-122)

또 다른 요인은 서인도제도의 프랑스 식민지 생도맹그 섬의 놀라운 생산력이었다. 에릭 윌리엄스에 따르면, 비옥하기 이를 데 없는 “프랑스 식민지[생도맹그]의 사탕수수 생산비용은 영국 식민지보다 20%가 적었다.”(122) 게다가 생산량도 프랑스 식민지가 월등하게 많아서 서인도제도의 영국 식민지는 사탕수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그 결과, 서인도제도의 영국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장주의 수익률은 1800년에 2.5%였으나 1807년에는 0%였다”(149),

이러한 서인도제도 영국 식민지의 사탕수수 수익률 감소와 경쟁력 하락에 덧붙여 영국의 산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무역정책은 기존의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변화가 1807년 영국의 노예무역 금지로 표현되고,

2) 이런 측면을 강조한 저술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윌리엄 월버포스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있다. 월버포스의 전기는 2006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1833년의 노예제도 폐지로 이어졌다고 에릭 윌리엄스는 주장함으로써 인도주의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영국의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하고자 시도했다.

4. 에릭 윌리엄스와 흑인운동

에릭 윌리엄스는 서인도제도 트리니다드토바고 출신의 역사가이자 정치인이다. 1956년 인민민족운동당(PNM)을 창설하여 정계에 입문한 에릭 윌리엄스는,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영국에서 독립한 1962년 초대 수상에 오른 후 1981년 서거할 때까지 수상직에 머무른 정치인이다. 이런 이력을 감안하여, 흔히 트리니다드토바고의 국부라고 부른다.

그러나 에릭 윌리엄스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학자였다. 1911년 말단 공무원이던 아버지와 크레올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윌리엄스는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즐기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는데, 후원자의 도움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 유학하여 역사를 공부했다. 1935년 옥스퍼드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에릭 윌리엄스는 1938년 「서인도제도의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와 철폐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39년부터 미국의 하워드대학교 교수로 일하면서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1944년 대표작 『자본주의와 노예제도』를 출판했다. 이후 꾸준한 저술활동을 벌여, 『트리니다드토바고인의 역사』(1962), 자서전 『내면의 갈망』(1969), 『콜럼버스에서 카스트로까지: 카리브 해의 역사 1492-1969』(1970) 등 여러 권의 책을 남겼다.

이러한 에릭 윌리엄스의 지적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1938년 『블랙 자코뱅』(The Black Jacobins)를 출판한 C. L. R. 제임스였다. 제임스는 이미 1920년대부터 윌리엄스를 알고 있었고, 윌리엄스는 마치 스승처럼 제임스를 따랐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영국에서도 이어져, 윌리엄스는 『블랙 자코뱅』을 집필하던 제임스에게 여러 논문을 보내 평을 부탁할 정도로 가까웠다. 훗날, 그러니까 1962년 윌리엄스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초대 수상에 취임한 이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두 사람

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말았지만, 윌리엄스가 『자본주의와 노예제도』의 참고문헌에서 특별한 감사를 표한 두 권이 선행연구 가운데 하나가 『블랙 자코뱅』이다. 제임스의 책은 1804년 아이티가 독립하기까지 자유를 향한 흑인 노예의 투쟁을 다룬 역사서로, 흑인 노예를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는 18세기 서구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윌리엄스의 『자본주의와 노예제도』는 이러한 제임스의 명제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윌리엄스의 책은 20세기 초반 서인도제도와 미국에서 전개된 아프리카계 후손의 정치사회 운동과 관계가 있다. 19세기 노예해방으로 아프리카계의 문화적 자의식이 성숙하고, 이를 바탕으로 20세기 초반에는 아이티의 장 프리스 마르스, 미국의 듀보이스, 자메이카의 마커스 가비,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제임스, 마르티니크 출신의 프란츠 파농과 에메 세제르 등 다양한 운동가와 사상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삶과 경험에 정초하여 역사와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흑인민족주의, 범아프리카주의, 네그리튀드, 흑인민권운동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르지만, 근저에는 서구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바로잡고, 세계사의 능동적 주체라는 위상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윌리엄스도 『자본주의와 노예제도』의 마지막 문장을 “흑인노예의 해방을 촉진한 것은 바로 흑인노예 노동이 창출한 경제력의 발달이었다”(208)고 맺는다.

5. 비판과 기여

1944년 미국에서 출판된 『자본주의와 노예제도』는 한편에서는 호평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경제사학자는 지속적으로 윌리엄스의 명제를 검증하고 또 비판했다.

먼저, 노예제도가 경제적 현상이라는 윌리엄스의 명제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와 노예제도』가 출판된 직후부터 제기되었다. 프랭크 타넨바움(Frank Tannenbaum)은 1946년 서평에서 노예제도를 경제적 요소로 설명한다면 법률, 관습, 예언, 신앙, 정의와 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리석고 무용한 일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비판은 노예제도는 경제적 현상이라는 윌리엄스의 주장을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적절하지도 온당하지도 않다.

윌리엄스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서인도제도 영국식민지의 수익률 저하와 관련하여 로저 앤스테이(Roger Anstey)는 『대서양 노예무역과 영국의 노예제도 철폐』(1975)에서 1761년부터 1807년까지 노예무역의 수익률은 연평균 9.5%였으므로 결코 수익률이 낮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세이무어 드레셔(Seymour Drescher)는 『이코노사이드: 노예제도 폐지 시대의 영국 노예제도』(1977)에서 영국이 노예무역을 금지하던 순간에도 노예무역은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었다면서 노예무역 폐지의 동인은 수익률 하락이 아니라 인도주의에 입각한 폐지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반론도 만만치 않다.

1980년대의 비판은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영국의 산업혁명에 기여했다는 윌리엄스의 명제로 초점이 옮겨갔다. 일찍이 스탠리 잉거만(Stanley Engerman)은 「노예무역과 18세기 영국의 자본형성」(1972)에서 노예무역의 이윤이 영국의 산업에 투자되기는 했으나 이는 전체 자본의 1%-1.7%에 지나지 않으므로 중요한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데이비드 엘티스(David Eltis)는 『경제성장과 대서양 노예무역의 종말』(1987)에서 노예무역의 수익률은 높았으나 산업혁명을 촉진할 만큼 자본축적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엘 모커(Joel Mokyr) 또한 『영국 산업혁명: 경제적 관점』(1993) 서문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에서 획득한 이윤은 서인도제도에 다시 투자되었기 때문에 윌리엄스의 명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영국 자본주의의 내재적 성장론이 퇴조하고, 윌러스틴의 근대세계체제론의 시각에 영국의 경제발전을 논하게 됨으로써 윌리엄스의 명제는 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로빈

블랙번(Robin Blackburn)은 『신세계 노예제도의 형성』(1997)에서 신세계의 노예제도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노예노동에 기초한 서인도제도의 플랜테이션과 교역은 영국 자본주의가 산업혁명과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돌파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윌리엄스에 대해 비판적이던 데이비드 엘티스와 스탠리 잉거만도 2000년 논문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영국 산업혁명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에릭 윌리엄스가 남긴 가장 큰 학문적 기여는 바로 『자본주의와 노예제도』를 둘러싼 지난 60여년간의 비판과 논쟁일 것이다. 수익률 저하가 노예제도 폐지의 동인이었다는 윌리엄스의 명제는 더 이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나,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영국의 경제발전, 즉 산업혁명의 동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명제는 이에 동의하는 학자는 물론 반대하는 학자에게도 여전히 학문적 탐구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에릭 윌리엄스의 『자본주의와 노예제도』는 서구중심적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탈식민적 기획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기획은 6,70년대 월터 로드니, 군더 프랭크 등의 종속이론과 두셀의 해방철학으로 이어지고, 90년대에서 현재까지는 월터 미놀로 등의 탈식민주의(decolonialismo)로 계승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지성사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야를 좀 더 넓혀 보면, 당시까지 흔히 망각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근대사 전개에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6. 번역본에 관하여

이 서평을 거의 끝낼 무렵, 『자본주의와 노예제도』라는 서명으로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카리브 해 관련 연구 서적을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예전에 출판된 C. L. R. 제임스의 『블랙 자코뱅』처럼 이 책의 독자도 그다지 많지 않을 텐데, 출판사의 결심과 역자의 노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카리브 해 연구와 논의가 한

층 심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역서는 언제나 아쉬운 점과 미진한 부분이 남게 마련이다. 이런 점은 제3자인 독자가 보면 더욱 도드라져 보이기도 한다. 이 자리는 번역 비평을 위한 곳은 아니므로 번역본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번역본의 일러두기를 보면 역자는 인디아(India)와 인디아스(Indias, 영어로는 Indies)를 동일한 단어로 간주하고 있는데, 인디아스는 식민시대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식민지를 부르던 고유명으로 인도와는 구별되는 단어이다. 아무튼 서인도(West Indies)보다는 서인도제도가 더 적절한 번역어이다. 식민농장(plantation)은 카리브 해 관련 연구에서 전문용어로 굳어진 플랜테이션이라고 옮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된다. 흑설탕(raw sugar)보다는 원당(原糖)이 더 나은 표현이며, 원전처럼 줄여서 설탕이라고 번역해도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몇 군데 심각한 오역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같이 읽어볼 만한 책

Eric Williams, *Capitalism & Slavery*,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44.

에릭 윌리엄스, 『자본주의와 노예제도』, 김성균 옮김, 우물이 있는 집, 2014.

에릭 메택시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윌리엄 월버포스와 노예제도 폐지 운동』, 김은홍 옮김, 국제제자훈련원, 2008.

시드니 민츠, 『설탕과 권력』, 지호, 1998.

케네스 포메란츠, 스피븐 토픽,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 심산, 2009.

C. L. R. 제임스, 『블랙 자코뱅』, 필맥, 2007.

Walter Rodney, *How Europe Underdeveloped Africa*, Washington D.C.: Howard University Press, 1984.

박병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